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추억의 가수 박재란**

세상이 온통 무지개 빛으로만 보이던 18세 때. 유난히 나를 귀여워 해주시던 형부의 친구 분 중에 경찰악대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재란아, 너는 목소리가 피꼬리 같구나. 가수가 되지 않을래?"

나는 그저 아무 것도 모르면서 형부친구분의 손에 이끌려 가수가 되었습니다. 데뷔곡은 <럭키 모닝>. 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어서 <산너머 남촌에는>, <말짚모자 아가씨> 등 국내 최초의 율동 가수가 되어 주가를 날로 높이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찬란했습니다. 인기! 돈! 어디를 가든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 달콤한 맛!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이란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그러나 세상의 인기는 물거품 같은 것.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떠받들던 가요계에 새로운 가수가 계속 등장하면서 박재란의 인기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 일변도였습니다. 신혼의 단꿈마저, 딸 하나를 얻은 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집념은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인기를 다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한가지뿐이었습니다. 집념은 병이 되어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심장과 신장에 이상이 오더니, 급기야는 악성 위궤양이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발병 초기에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던 이웃들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6개월, 1년, 다시 반년...그렇게 2년이 되면서 얼굴은 새까맣게 기미로 뒤덮히고, 스타킹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는 가늘어져서 일어서서 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나날이 질어가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던 어느날, 무심중에 TV를 켜니, LA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TV선교 프로그램 방송 중에 어느 선교사 한분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이 들려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갑자기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없이 들어 왔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 한 말씀! 갑자기 '성경! 성경!' 성경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아 가며 성경을 찾고 보니 오래된 포켓용 성경 한 권이 찾아졌고, 그 길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실감할 수 없었던 대목 대목들이 생명수처럼 가슴으로 가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눈물, 콧물, 앞드려 통곡하다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다가, 어릴 적 소꿉동무에게 행한 거짓말까지 나날이 떠올라 회개, 회개로 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앞드려 울던 자리가 눈물로 질펀하게 젖어 있었으나 시장기까지 느껴져, 냉수에 밥을 말아 김치를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먹다가, '아니 내가... 김치하고 냉수말이 밥을 먹고 있지 않아?' 깜짝 놀랐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활기와 힘이 솟구쳤습니다. 너무도 신기하여 그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다시 봇물...이래로 15년 동안 병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건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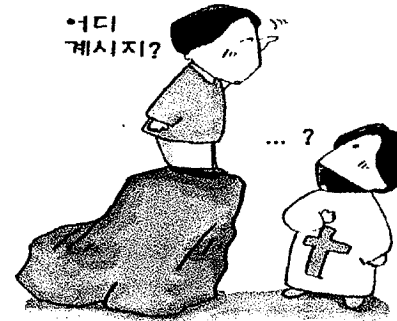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받아 육신의 갖가지 병이 흔적도 없이 지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는 무엇이며 인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노래하는 전도사! 찬양의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어서, 허황된 꿈을 좇기 쉬운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딸 박성신까지 청소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수 박 재란 -

교회목표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1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4월 14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예수님이 안보이는 이유

예수님이 안보이는 이유



내가 생각보다 높은데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두 사람의 영웅 링컨대통령과 스토우 부인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툼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스토우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정말 스토우부인입니까? 뜻밖인데요."

"뜻밖이라뇨?"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할 줄 알았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지요."

이번에는 스토우 부인이 말했습니다.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각하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표정이군요."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힘이여야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 보이는 예수님을 비로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성형수술을 꿈꾸지 말아라 좀 덜 예뻐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내면의 성형은 삼투작용이 있어 바깥으로 스며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운 것을 여자가 들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힘있게 만드시기 보다는 보호받게 만드셨다 너는 힘있는 남자가 되라
--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9(시 23)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43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윤형권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6:1-11(신 98)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믿음의 중심을 "	
찬 송 Hymn	340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 안 내
7일	양경배	김영길	최재학.정덕수	최재학.정희자
14일	윤형권	김순자	전병주.권용일	권용일.이지영
21일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김영길	박병민.이기중
28일	정덕수	노은숙	김종건.박기원	박정자.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아동, 학생, 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 오늘 식사 친교주일입니다: 약간 모자란듯한 양이었던 부활주일에는 왜 더 먹고 싶던지요. 오늘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화요일(16일) 저녁 7:30. 교회
"약속의 아버지"기도회. 목요일(18일) 저녁 7:30. 교회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등록교우 의무과정입니다
*일시: 4월 15일(월)부터 4회 월요일 *대상: 작년 10월 이후 등록교우
*이번기에 참석가능하신분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택자 교육: 향촌직 피택자 교육과 기도회를 갖습니다
*일자: 매달 1,3주 화요일 저녁 7:30. 교회
*교육시작일: 4월 23일
- 결식자 점심식사 봉사: 토요일(20일). 오전 10시. <담당> 제1여선교회
- 도서실 운영을 위한 신앙, 교양서적, 동화책, 테잎(성가, 가곡등), VTR테잎등의 기증을 기다립니다
*주방에 있는 도서함에서 Tea time 시간에 대출을 합니다
*운영 관리: 권용일, 박병민, 윤형권 집사
- 방문자를 위한 교회비치용 성경, 찬송가 봉헌: 서울 명광교회 이진철 집사
- 한국의 갈보리교회(박조준 목사)에서 올해 달력을 보내왔습니다.



9.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이광희, 이규임 집사(15일)
*박병민, 이기중 집사(16일)
*박일영, 임혜자 집사(19일)
"그날 내게로 걸어오던 신부.....
오늘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리다"
행 ~~~복하세요



- 정정과 함께 죄송합니다: 신영화, 윤형권 집사 지난주 득녀.
-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김종원, 김영경 집사. 대연. 지연. 하금빈, 규빈. 최보윤
☎ 415-7456 ☒ 42 Pukatea Ave. Albany
*민광호, 김심홍 집사. 지혜. 영규. 지희. 상우 ☎ 479-8393 ☒ 18 Carrowmore Pl. Pine Hill
*최득수, 오지영 집사. 장한. 이종후(자부). 윤형, 유나
☎ 483-6961 276 B Rangatira Rd. Beach Haven. North Shore
- 월드컵성공기원(?) 갈보리교회 vs 주님의교회 친선 축구시합
*오늘 오후 3:30. Sunnynook(New World 옆 Park)
- 내일 초, 중, 고 자녀 개학.

이번 Term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자녀들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곤충채집, 밀린 방학일기 한꺼번에 쓰기, 방학책....모두가 그리운 것 뿐이어서
개학 준비 위해 구석에 밀어둔 가방 챙겨주다 방학날 가져갔던 도시락을 이제 꺼냈습니다